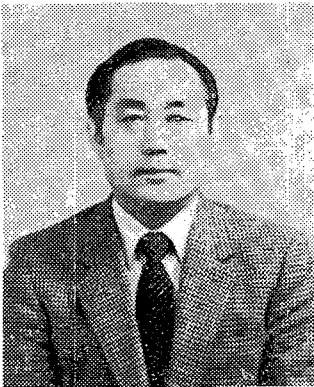


# 環境保全의 우선 順位



洪 淳 佑

〈서울대미생물학과教授·本報편집위원〉

오늘날 地球村의 問題는 총인구의 약 1/4 에 불과한 10억 정도의 사람들이 잘났든 못났든 先進國에 태어났다는 혜택때문에 전세계의 自然資源量 가운데 반이 넘는 2/3 가량을 아무런 罪責感도 없이 消費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러가지 産業製品의 生産活動과 過多한 消費活動으로 인하여 그들의 주변環境을 汚染시키고 있으며, 文化度가 낮은 곳에 비하여 대부분의 경우 現代科學文明을 구사하고 있는 만큼 環境破壞도 더 많이 進行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先進工業地區에 둘러싸여 있는 독일의 黑林(black forest)이 工業化에 따른 극심한 大氣汚染으로 인한 산성비 등의 영향으로 점차 시들어 간다든지, 북구나 북미의 수 많은 湖水가 産業廢水와 廢棄物의 蓄積으로 인하여 점차 죽음의 生態系로 변화되고 있는 것 등도 人口密度와 함께 消費力이 큰 人間群集의 活動이 왕성한 곳에서 주로 나타나는 現狀들이다.

한편, 文化度가 낮은 곳에서도 높은 人口密度로 문제시되기는 하나 産業化 過程에서의 重要性

---

文化度가 낮은 後進國도 경제성장을 위한 産業化 과정에서 自然環境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삼림의 濫伐등 갖가지 自然 파괴가 盛行하여 資源의 고갈을 앞당기고 있어 地球村의 앞날은 더욱 걱정스럽다.

---

에 대한 認識의 부족으로 自然環境이 무분별하게 毀損됨으로써 홍수와 가뭄 등의 天災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非工業化地域의 國家에서는 그들의 生存을 위한 自然環境의 파괴가 森林의 濫伐, 土壤의 流失 및 침식, 사막화 등을 초래하여, 資源의 枯渴을 深化시킬 것으로 예

地球村의 總인구 약1/4에  
 불과한 10억정도의 人口가 先進國에 태어났다는  
 혜택으로 천연자원의 2/3가량을 過多한 소비로 인하여 우리들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파괴는  
 극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측된다. 이와 같이 先後進國에서 점증되고 있는 自然環境의 파괴活動은 내일의 地球村을 매우 危殆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現實을 감안하여 1970年代 後半부터 國際自然保存聯合(IUCN)은 國際環境計劃(UNEP) 및 國際野生生物基金(WWF)의 後援을 얻어 점차 비좁아지고 있는 단 하나의 地球村(only one earth)에서 人間의 生存을 持續하기 위한 努力의 일환으로, 1980년에 世界保存戰略(world conservation strategy =



環境問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汎 國家적인 "世界保存戰略"이 마련되었기는 하나 充足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전에 環境保全施策에 우선 순위를 두어 대대손손 靑淸한 生活환경이 되도록 해야겠다.

WCS)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81년부터 세계 여러나라가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변화하는 地球村에서 生命을 지탱할 수 있게하는 努力, 즉 靑淸한 人間生活을 위한 自然·環境保全運動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戰略의 指針에는 여러가지 原理 原則이 提示되어 있으나 무엇보다도 重要하게 생각되는 것은 自然保存 또는 環境保全을 위한 制限 政策이 다른 行政施策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설치와 함께 이 기구가 강력한 行政力을 발휘할 수 있는 法的 措置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自然環境의 保全業務는 여러 行政部處間에 重複되어 있으며, 그 推進內容 자체도 複合적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效率인 業務遂行을 위한 調整機能도 重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自然保全行政은 IUCN會員國 가운데서 다소 後進性을 띠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2,000年代의 복지사회를 指向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開發政策에 環境保全을 위한 政策이 얼마나 우선적으로 配慮되어 있으며, 政府次元에서 環境問題를 어느 정도나 다루고 있는지 궁금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항상 주장되고 있다시피 環境保全은 늦기전에 對策을 마련하는 것만이 最上策일 것이며, 이는 한 家庭에서 질병 발생후 그에 대한 對症療法도 重要하겠지만 發病前에 이를 슬기롭게 豫防하는 것이 무엇 보다 賢明한 處方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따라서 한 國家의 살림살이에서는 무엇보다도 앞을 내다보는 施策이 重要하다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우려되는 내일의 폐쇄지구촌에서의 生存을 위해서, 야심적인 開發計劃이나 投資計劃을 마련함에 있어 環境保全施策에 優先順位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의 後孫들이 이땅에 代代孫孫 靑淸하고 幸福한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긴 안목에서의 政策樹立이 절실하다 하겠다. \*